

이명박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해야 할 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을 맞이했다.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50%에 가까운 국정운영 지지율에 담겨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취임 3주년 무렵 20% 후반의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높지 않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MB)의 지지도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첫째, 경제대통령의 이미지에 걸 맞는 경제성적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지구촌을 강타한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위기를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6.1%로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4664억달러 역시 사상 최대였다. 둘째, 노무현 정부때 뼈대까지 흔들렸던 한미동맹관계를 다시 추스르고 다져놓았다. 이런 안정적인 한미관계의 복원으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시켰다. 셋째, 성공적인 국제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을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넷째,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던 영웅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배려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02년에 발생한 서해교전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 “나라위해 간 분을 홀대한다”며 이 나라가 싫어 결국 조국을 떠났던 적이 있다. 그녀는 “영웅인데도 영웅대접을 못 받은 것은 분명 잘못 아닌가”라며 “이런 희생이 있는데도 왜 북한에 할 말도 못하고 사과도 못 받고 그럴까. 군 통수권자가 군인의 말을 믿지 않는 게 문제”라고 눈물을 흘렸었다. 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일인가? 다행히 이 부인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더구나 현 정부가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또 국가차원의 기념일로 격상시키면서 그동안 잊혀져 갔던 서해교전을 국민들의 기억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MB가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높지만 바닥민심은 싸늘하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통치(governing)와 같은 일은 잘하는 것 같지만 정치(politics)는 잘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통치란 대통령이 행정가로써 일을 잘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치의 일차적인 관심은 대통령이 경제를 잘 이끌어 의미있는 성과를 내 놓으냐에 모아져 있다.

김 형 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한국선거학회 회장



반면, 정치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첨예한 이해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MB의 반복적인 인사 실패, 거칠고 아마추어적인 정책갈등조정, 상징조작의 미숙함, 야당 배제의 불도저식 국정운용스타일 등을 접하면서, “대통령이 일은 참 열심히 하는 데 정치는 정말 못한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MB는 지난 2월 1일 신년 방송좌담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해’ (대신) 공약 때 어디를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공약집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유세를 충청도에 가서 이야기했으니 표 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라 오는 4월에 발족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그 문제를 갖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MB 발언은 ‘공약백지화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수습은 청와대가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MB는 최근의 레임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신이 권력에 빠진다거나 권력을 행사한 삶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더 해야 할 일을 하고 떠나야겠으며, 기초를 닦고 가야겠다”고 발언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레임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이 묻어 있는 발언 같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 일을 하더라도 정치지혜를 바탕으로 정치감각을 살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MB가 오랜 기간 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CEO형 리더십은 하루 아침에 바꾸기가 힘들다. 이것이 MB가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정치를 피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의 힘은 급속하게 빠지게 되지만 개헌, 과학벨트 및 동남권공항입지 선정, 한미 FTA 비준, 남북관계 개선 등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MB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정치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정치에 대한 인식의 대변화를 이뤄야 한다. 정치는 더럽고 비생산적이라서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더 이상 인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정치를 피할 게 아니라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실패했지만 정치만은 성공했다는 대통령은 여태 한 명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정치에 실패하고도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대통령도 없었다”는 한 중견 언론인의 충고를 깊이 새겨 들을 만 하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을 걷겠다’는 코페루니크스적인 전회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소통을 제대로 해야 한다. MB정부의 언론과 국정소통방식은 ‘홍보만 있고, 소통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달하고 대통령의 지적이나 성과만을 홍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MB는 취임 후 3년 동안 수십 차례 회견을 했지만 민감한 현안을 묻고 답하는 제대로 된 기자회견은 사실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연설은 세번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정리된 원고만 읽는 것으로 끝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네번의 신년기자회견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두 번의 신년회견과 두 번의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27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것(going to the public)을 선호했고, 이것이 여야를 넘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MB도 이제는 일방적인 담화 또는 연설, 정해진 각본에 따른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 보다는 기자회견·토론 등 쌍방향 대화에 치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MB는 지금이라도 ‘청계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장 당시 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칙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과 수천 번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해 성공을 거두었던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다하더라도 국민과 정치권을 향한 정치 소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셋째, 더욱 낮은 자세로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MB와 야당의 관계는 공공 일어붙어 있다. MB는 2008년 9월 이후 28개월 동안 야당 대표와 회동하지 않았다. 손학규 신임대표체제가 출범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회동에 인색하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조와 지지를 구해야 MB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등 국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하는 파격을 보여야 한다. 야당에 의한 국가 기밀 누설을 두려워 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하지책이다.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도 여당 못지않게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믿음과 함께 MB는 통 큰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요약하면 MB가 급속한 레임덕을 막으면서 남은 2년 동안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